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42 호
| 2018-02 |
2018.1.8.

수출 편중도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요약

무역선진국들은 수출품목의 수가 많으면서도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는 수출 편중 현상이 발생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도(2015년)는 2.5로 경쟁국의 2.0 내외에 비하여 높은 수준

- 수출액 기준 최상위 5%(95~100%)의 수출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74%인 데 비해 경쟁국은 65% 내외를 기록

수출 편중도가 높으면 수출 변동성도 심한 것이 일반적이거나 한국을 포함한 무역대국들은 수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 하지만 개별품목들의 수출 변동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경쟁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

세계무역에서 영향력이 큰 민감품목의 수출 편중도는 한국이 1.23으로 역시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민감품목은 수출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국보다 5~10%포인트 더 높아 수급 충격에 취약

안정적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블루칩 품목의 수출을 늘려 수출 변동에 따른 하방경직성을 강화할 필요

- 국내 기업은 블루칩 수출 품목의 개발·확대를 위하여 가치사슬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혁신적 경영활동을 강화
- 정부는 국내 우량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수출역량이 극대화되도록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도, 경쟁국에 비해 높아

세계 주요 무역국은 수출품목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수출액을 늘려가면서 수출 확대를 도모

- 무역선진국들은 수출품목의 수가 많으면서도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는 수출 편중 현상이 발생

품목별 수출액을 기준으로 수출액 분포를 분석하여 수출 편중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도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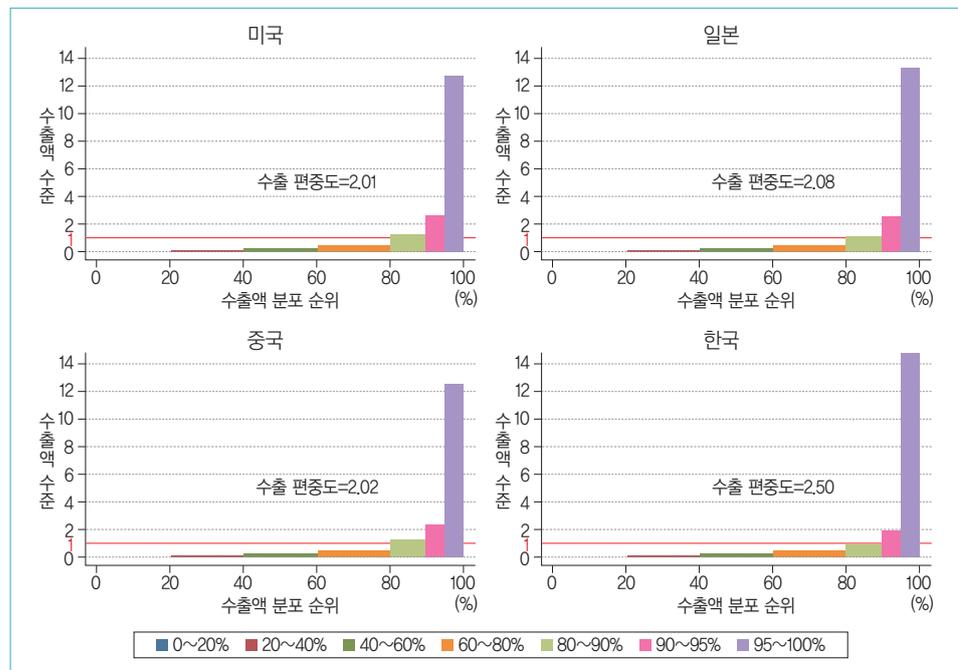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수출액 기준 최상위 5%(95~100%)의 수출점유율은 74%로 경쟁국의 65% 내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⁰¹⁾

반면에 차상위(90~95%)와 차차상위(80~90%)의 수출점유율은 각각 10%와 8%(합계 18%)로 나타나 경쟁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

- 경쟁국의 두 분위 수치 합계를 보면 23~25%로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한·미·일·중 모두는 상위 80% 이하의 수출점유율이 10% 내외에 그쳐 사실상 전체 수출상품 가운데 상위 20%가 그 나라의 수출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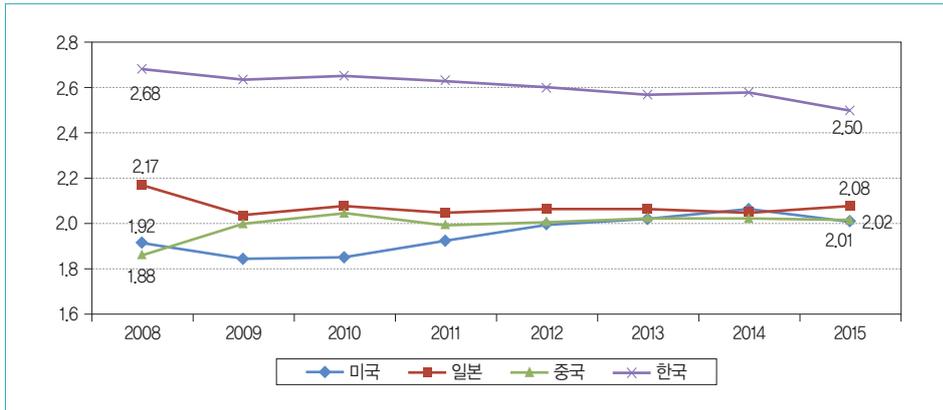
그림 1] 한·미·일·중의 수출액 분포(2015년)



자료 : BACI2007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작성.

01] <그림 1>에서 수출액 분포가 완전히 평등하면 세로축의 1에 표시된 수평선(빨간 선) 모양으로 분포. 각 분위별 수출점유율은 각 막대의 면적으로 계산(예를 들어, 한국의 최상위 5%의 수출액 점유율은 5% × 14.8=74%)

그림 2] 수출 편중도 지수 추이(2008~2015년)



자료 : BACI2007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작성.

- 결국 한 나라의 수출경쟁력은 상위 10% 정도의 품목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강한 상품으로 수출바스켓을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의미
-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LCD), 휴대폰 등 IT산업과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주력 수출상품으로 경쟁력을 유지

4개국의 수출 편중도 지수⁰²⁾를 계산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엇갈리는 모습 (〈그림 2〉 참조)

- 한국의 수출 편중도는 경쟁국에 비하여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

추세로 보면 수출 편중도 지수가 2008년의 2.68에서 2015년에는 2.50으로 약간 낮아져 주력 수출상품의 다양화와 저변 확대가 진전되면서 수출 편중도가 완화

- 일본 역시 수출 편중도가 약간 낮아져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탈피하는 모습
-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수출 편중도는 더 높아져 두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출에 더욱 주력했음을 시사

수출 편중도가 높으면 수출 변동성도 커져

일반적으로 수출품목 수가 적거나 특정한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으면 수출 변동성도 커지는 경향

- 대표적으로 1차 상품의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산유국이나 저개발국들은 수출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

⁰²⁾ 수출 편중도 지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의 하나인 타일 지수(Theil index)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3] 수출 편중도와 수출 변동성의 관계¹⁾



자료 : BACI2007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작성.

주 : 1) 국가별 수출 편중도는 2008~2015년 지수의 평균치, 수출 변동성은 2009~2015년 간 연도별 수출증가율의 표준편차.

수출품목 수가 비교적 많고 수출구조가 안정적인 선진국이나 신흥시장국에서도 수출 편중도가 높으면 수출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관측(그림 3) 참조)

- 선진국들은 신흥시장국에 비하여 수출 편중도가 낮고 수출 변동성도 작은 것이 특징

선진국 중에서 미국, 독일 등 무역대국은 수출 변동성이 작으나 스웨덴, 포르투갈과 같은 무역소국들은 수출 변동성이 커서 무역규모에 따른 수출 변동성의 차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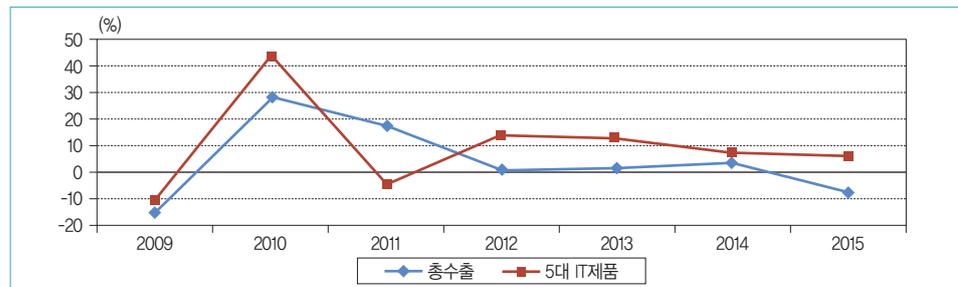
- 아시아 국가 가운데 무역규모가 큰 한국과 중국 역시 수출 변동성이 작은 편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 편중도가 높으면 수출 변동성이 커지나 수출규모나 수출품목의 특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

-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 등 IT제품의 수출 변동은 반도체 사이클의 영향을 받으며,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지배력이 크면 수출 변동 폭이 비교적 작을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등 주력 IT제품의 수출액은 세계무역이 V자로 회복하던 201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에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독자적으로 변화(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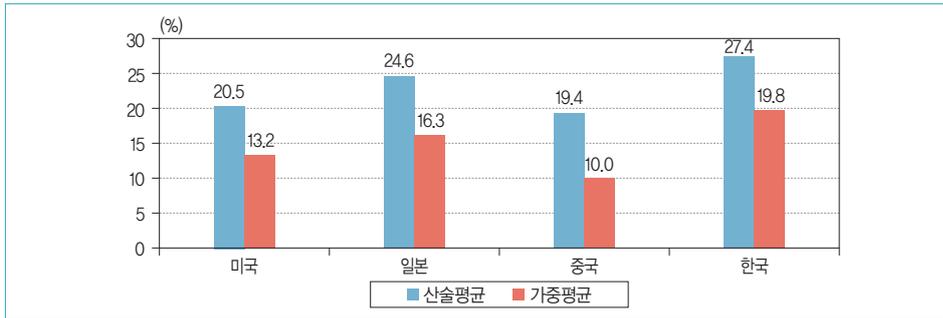
그림 4] 우리나라의 총수출과 5대 IT제품의 수출 증가율



자료 : BACI2007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작성.

주 : 5대 IT제품은 HS 854231(마이크로 프로세서), 844232(메모리), 854239(기타 집적회로), 851770(휴대폰 부품) 및 901380(액정 디바이스) 포함.

그림 5] 개별품목의 수출 변동성 비교¹⁾



자료 : BACI2007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작성.

주 : 1) 산술평균 : 2009~2015년 간 개별품목의 수출 변동률 표준편차를 단순평균.

가중평균 : 개별품목의 수출점유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계산한 평균.

- IT제품의 수출은 변화 폭이 크면서도 전체 수출 변동과 엇갈리는 모습으로 변화
- 2012년 이후에는 총수출 증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IT제품의 수출은 건실하게 증가하여 총수출의 하락을 지지하는 역할 수행

일반적으로 총수출의 변동 폭은 개별품목의 수출 변동 폭보다 작는데 이는 수출바스켓을 구성하는 주요 품목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어 총수출의 변동 폭을 줄이기 때문

- 이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개별품목의 주가 변동 폭이 크더라도 상승 품목과 하락 품목이 고르게 분포하면 종합주가지수의 변동 폭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

개별품목의 수출 변동률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 변동률이 미·일·중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그림 5) 참조)

- 단순한 산술평균보다도 수출점유율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평균에서 경쟁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
-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력수출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 수출 변동률도 크기 때문

반면에 중국은 산술평균이나 가중평균 모두 수출 변동률이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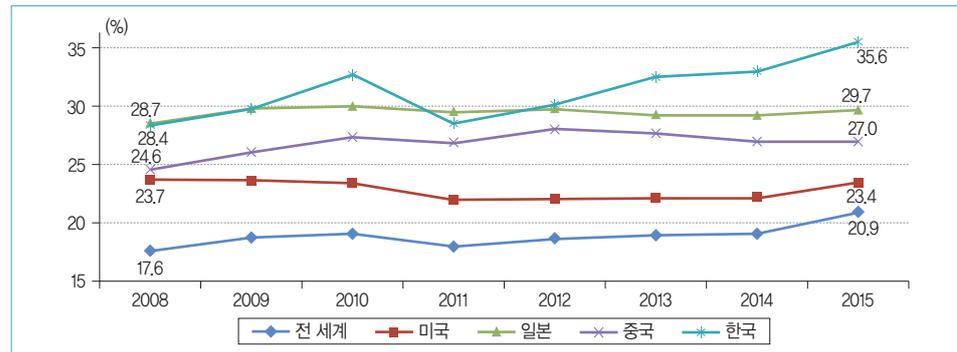
- 특히,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수출 변동률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이는 중국이 수출하는 주력상품의 수출 변동 폭이 작아 수출상품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증⁰³⁾

민감품목이 수출 편중과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 커져

세계 수출품목 가운데 산업용 중간재나 자본재로 사용되는 상품은 소비재에 비하여 공급 충격이나 수요 충격에 민감

⁰³⁾ 중국은 휴대폰, 휴대용 PC, 가전 등 수출 변동 폭이 비교적 작은 소비재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수출상품 구조의 안정에 기여.

그림 6] 민감품목의 수출 비중 추이(2008~2015년)



자료 : BACI2007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작성.

- 이들 제품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밀접한 가치사슬을 이루면서 독과점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세계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감품목으로 분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세계무역의 100대 민감품목^{04]}이 각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그림 6) 참조)

- 세계무역에서 민감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17.6%에서 2015년에는 20.9%로 상승
- 국별로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일본과 미국은 약간 상승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하여 민감품목의 비중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

- 여기에는 민감품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IT중간재 산업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앞의 <그림 4> 참조)
- 민감품목의 수출비중 확대는 수출 편중 현상을 심화하고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이 증폭되는 효과 발생^{05]}

실제로 4개국의 100대 민감품목의 수출비중을 구하여 분포를 그려본 결과, 우리나라는 1~10위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수출 편중이 두드러지게 부각(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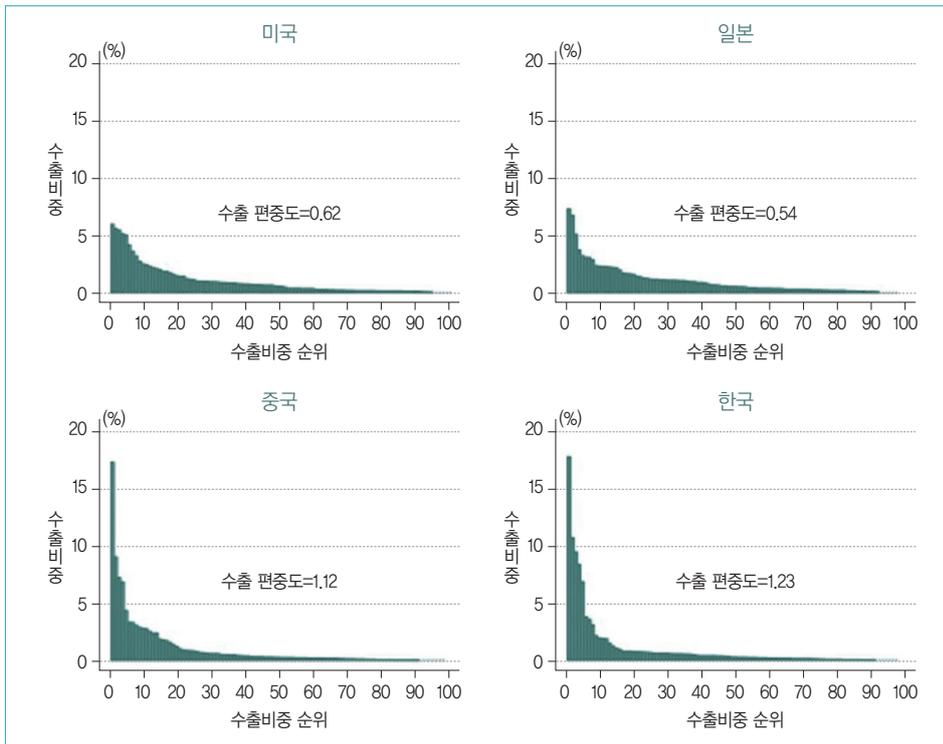
- 중국의 수출 편중도 심한 편이나 10~20위에 속한 품목의 수출비중도 꽤 높아 한국보다는 약한 수준
- 미국과 일본은 한·중에 비하여 오른쪽 꼬리 방향의 분포가 비교적 두터워 수출 편중이 완화

민감품목의 수출 편중도를 수치로 보면 한국이 1.23으로 미·일·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04] 100대 민감품목은 IMF, "Assessing the Fragility of Global Trade: The Impact of Localized Supply Shocks Using Network Analysis", Working Paper WP/17/30, February 2017의 방법론을 참조하여 선정.

05] IT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잘 발달되어 있어 어느 한 사슬에 충격이 발생하면 전체 사슬로 영향이 빠르게 파급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큰 것이 특징.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과 태국의 대홍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해 세계 IT산업은 연쇄적인 생산 충격이 파급되는 혼란을 경험.

그림 7] 민감품목의 수출비중 분포 비교(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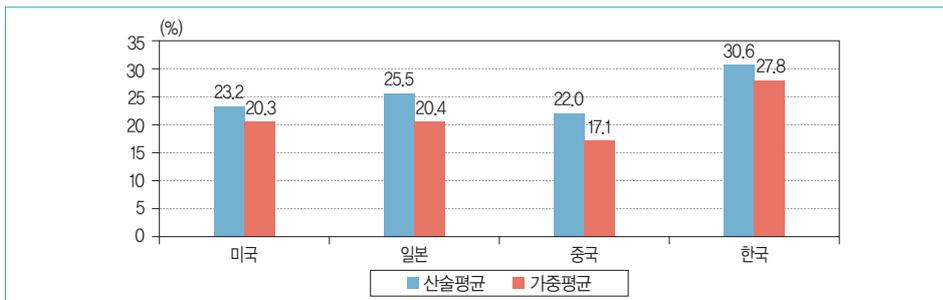
자료 : BACI2007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작성.

- 중국은 우리보다 낮은 1.12이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
-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은 경쟁국에 비하여 민감품목의 수출 편중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

민감품목은 세계적인 수급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출 변동성도 큰 것이 특징
(〈그림 8〉 참조)

- 민감품목의 수출 변동성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와 경쟁국 모두 전체 품목의 변동성보다 높은 수준(앞의 〈그림 5〉와 비교)

그림 8] 민감품목의 수출 변동성 비교



자료 : BACI2007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작성.

주 : 1) 산술평균 : 2009~2015년 간 개별품목의 수출 변동률 표준편차를 단순평균.

가중평균 : 개별품목의 수출점유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계산한 평균.

우리나라와 경쟁국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5~10%포인트 더 높아 개별 민감품목이 수출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

- 또한, 수출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출 변동성은 더욱 커서 민감품목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의 변동성이 전체 수출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구조

블루칩 수출품목의 개발과 확대에 노력해야

선진무역국들의 수출구조는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 수출품목(블루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

- 우리나라 수출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은 수출바스켓을 얼마나 경쟁력 있는 대형 우량품목으로 구성하느냐에 의존
-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우량품목을 대형 우량품목으로 키워나가면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하여 소수의 대형 우량품목에 수출이 쏠려 있어 해당 품목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수출 변동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

- 특히, 우리 수출구조는 세계무역에서 가치사슬의 영향력이 큰 민감품목의 비중이 높아 수출 안정성이 취약

이러한 수출구조에서는 가치사슬의 위쪽으로 수출역량을 확대하여 수출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부단히 높이고 수출 변동에 따른 하방경직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긴요

- 최근 우리 주력산업이 달성한 수출성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단한 혁신을 통한 가치창조 노력 여하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예 : 반도체 vs 조선)

국내 기업은 블루칩 수출 품목의 개발과 확대를 위하여 가치사슬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혁신적 경영활동을 강화

- 정부는 국내 우량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수출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윤우진
(선임연구위원·동향분석실)
younwooj@kiet.re.kr
044-287-3101

 **KIET** 산업연구원

발행인 유병규 / 편집인 강두용 / 편집·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287-3114 Fax: 044-287-3333 www.kiet.re.kr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에서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